

「슈라이엘마헬」의 百年忌 「슈라이엘마헬」과 現代(一)

田元培

『現代 神學의 祖』『푸리드리히·다니엘·에른스트·슈라이엘마헬』은 一七六八年 十一月 二十日일에 푸로시아[폴란드]의 브레스라우[브로츠와프]라는 땅에서 出生하여 一八三四年 二月十二일에 伯林에서 永逝하였다. 그러므로 昨日은 正히 그의 百年忌에 當하는것이니, 자못 一世紀를 激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偉大한 이 精神的 存在를 回顧하여보는것은 여러 가지 意味에 있어서 매우 意味있는일이라고 생각한다.

.....◇.....

더구나 當時는 오늘날에 지지 않을만한 動亂과 危機의 時代이어서 現代와 여러 方面으로 매우 類似한 歷史的 條件 下에 있었다.

첫째 푸로시아는 當時 佛蘭西 革命의 餘波로 因하여 非常히 困難한 社會 狀態에 빠졌 으며, 나폴레온의 大陸 封鎖令의 壓制下에 經濟的 危機를 演出하여 말하자면 政治, 社會, 經濟 各方面으로 非常時에 處하였었다. 그리 하여 世界大戰의 慘禍를 한 몸에 받아 滿身瘡痍가 되고, 大한 賠償金의 重壓 下에 呻吟하며 잇는 現代 獨逸과 恰似한 歷史的 情勢이서다고 볼 수 있다.

.....◇.....

둘째 當時는 三十年 戰爭의 뒤를 이어

一世의 英主人 푸레데리히大王의 손에 獨逸 統一 運動이 促進되어서 各方面으로 獨逸 民族 意識이 高調되어 잇었 으며, 一八一九年에는 푸로시아의 首唱下에 北獨逸의 聯邦이 聯合하여 相互間의 關稅□□을 □□하고 따라서 經濟적으로 統一하려는 目的으로 關稅同盟을 組織하여가지고 獨逸 統一 運動의 經濟的 基礎를 作成하였고 一八三四年 卽 슈라이엘말헬이 逝去하던해 에는 南獨逸 聯邦도 이 關稅同盟에 加盟하게 되었다. 그리 하여 關稅同盟이 名實上으로 完成되었으니 獨逸 統一 運動의 確固한 經濟的 基礎가 된 것도 今年이 第百週年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같이 히틀러의 나치스黨에 依하여 政治的 經濟的 破綻에 빠진 獨逸民族의 危機를 克服하라고 懊惱하고있는 現代『非常時』獨逸과 一脈相通하는 歷史的 情勢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하이데가[하이데거]』, 『니콜라이·할트만』과 같은 哲學者들까지도 스스로『나치스』黨의 黨員이 되어가고 祖國에 對한 哲學者의『知識勤務』를 부르짖고 있는 現狀을 아울러 보아 當時 슈라이엘막헬이 獨逸의 政治的 運命에 對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든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意義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

一八〇六年 여름이다. 나폴레온은

柏林에 侵入하여『柏林布告』를 내려서 大陸諸國과 英國과의 通商關係를 遮斷하고 同時에 獨逸南部와 西部를 占領하였다. 이와 같이 나폴레온의 勢力은 餘地없이 푸로시아의 天地를 縱橫으로 蹂躪하고 있었으나, 獨逸聯邦의 盟主인 푸로시아의 낡은 政治組織과 陳腐한 軍隊組織으로 서는 敢히 이 나폴레온에게 反抗할 수가 없었다. 그리 하여 國家 改造運動의 機運은 여기저기에 나타나 獨逸當面の 課題가 되었거니와『슈라이엘막헬』은 여기서 獨逸 全民族의 自由스런 總力量的 集中에 依하여만 나폴레온의 勢力을 驅逐할수있다고 생각 하였다.

.....◇.....

當時 슈라이엘막헬은 一友人에게 보내는

書簡中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네도 생각하여보게, 大體 個人이라는것은 혼자서 自己를 救濟할수는 없는 것일세, 우리들의 全生命을 모두 獨逸의 自由와 獨逸의 魂가운데에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일세. 우리들의 魂, 우리들의 宗教, 우리들의 精神的 教養 等 全般的으로 早晚間 一大鬭爭은 決코 皇帝와 傭兵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全 獨逸民族이 一致協力하여 싸워야할 鬭爭일세. 獨逸은 지금 刻一刻으로 危機에 다다르고 있는 것일세 云云.』

.....◇.....

여기서 보는바와 같이 『슈라이엘막헬』은 무엇보다도 一獨逸人으로서 祖國의 危機와 또 이 危機를 脫하기 爲하여 國家改造의 必然性을 觀取하였다.

一八〇七年 八月三日 그는 危機에 關한 祖國에 對하여 熱烈한 愛國的 情勢를 가지고 하—레 大學 채—폴 演壇에 올라서서 說教를 시작 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說教는 政治的 色彩를 띤인 一種의 政治的 煽動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는 宗教 改革 運動 時代 以來 처음 보는 偉대한 政治的 說教家가 되었다. 따라서 그의 基督敎的 宗教生活속에는 強烈한 民族的 思想과 感情이 깊

이 뿌리를 박고 잇었다.

.....◇.....

一八〇六年 八月과 九月의

反抗은 나폴레온에 依하여 餘地없이 粉碎되고 예-나와 아우웰슈타-트도 佛軍의 占領한바되어 이러케 進行하면 푸로시아國家의 前途에는 다만 暗□한 沒落의 悲運이 잇을 뿐이 었다.

그러나 『틸깃트』의 屈從的 和約以後 푸로시아는 名相 슈타인과 할덴벵 等の 弊政 改革과 愛國 精神의 振作에 依하여 國力을 涵養하는 同時에 샤룬 홀스트의 軍制 改革에 依하여 傭兵 制度를 徵兵 制度로 고쳐서 兵力을 充實히 하였다. 그에 따라 푸로시아의 愛國 思想은 더욱 高揚하고 나폴레온을 膺懲하자는 戰爭熱은 沸騰하고 잇었다.

여기서 『슈라이엘막헬』은 戰爭을 모든 生命의 不可避的 形態라고 하는 英雄的 意識에 넘치고 잇었다. 『神은 송장의 얼굴과 같은 安穩을 激成시켜서 生命을 부어주기를 畏避하지않으며, 따라서 假面을 쓴 似而非平和(틸깃트和約=筆者註)를 眞正한 平和로 轉化시키는 것이다.』